

 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			
	2018년 1월 23(화) 조간 (01.22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	환경부 수도정책과	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	기상청 이상기후팀
담당자	과 장 임재웅 서기관 김윤진	과 장 한준희	과 장 조희송	과 장 박병언	팀 장 박종서
연락처	044-205-5230 044-205-5231 010-3591-7521	044-201-1851	044-201-7110	044-201-3602	02-2181-0470

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

- 관계부처 합동 「2018년 가뭄종합대책」 마련 -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*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 내용을 담은 「2018년 가뭄종합대책」을 발표하였다.

*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기상청

-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「가뭄대응 종합대책」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.
-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·운영하고 있다.
- 작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% 수준이며,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.
-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 현황 정보에 유역별(117개)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,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기반의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○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 개발*을 적극 추진하고, 지역실정에 따라 저수지·양수장 등 수리 시설을 확충**해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 체계를 구축한다.

* 농촌용수개발 : 80지구(신규 7) 5만ha 중 14지구 4.2천ha 준공(3,813억원, '18년)

** 수리안전답률 : ('05) 43.8% → ('10) 52.9% → ('15) 60.5% → ('18목표) 62.0%

○ 국지적 가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, 둠병(물웅덩이)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가뭄 등 재해빈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·보급하고, 용수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
*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정하는 재배체계

○ 또한,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·군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,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.

* 저수율('18.1.16.) : 전국 평균 70%(평년 78%)

- 경기 83(88), 강원 88(87), 충북 91(86), 충남 87(84), 전북 63(75), 전남 58(73), 경북 71(80), 경남 61(75)

□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준공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운문댐(용수전용댐)은 가뭄 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, 저수율이 낮은 댐*에 대해 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활용 등 대책을 마련한다.

* 경계단계 : 보령댐('17.3.25.)·밀양댐('17.12.22.), 주의단계 : 주암댐('17.7.20.),
관심단계 : 부안댐('17.11.28.), 합천댐('18.1.14)

-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 '용수공급 조정기준'을 마련하고, 보령댐 도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.
-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위주의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, 해수담수화 사업, 광역상수도 인근지역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.

□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*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 자원 활용의 효율성**을 높인다.

* '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(1,748억원) : 44개 사업(상수관망 35, 정수장 9)

** '29년 까지 최종 103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 시 연간 1.6억톤 누수량 저감 가능(사업 대상지 유수율 평균 63% → 85%로 제고)

- 광주시 매내미 마을, 인천광역시 소청도 등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·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, 지방상수도 확충사업*,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
*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: 76.3%('15)→81.25%('18), '18년 263개소 추진(국비 2,950억원)

- 신안군, 완도군 등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정수장간 비상연계, 지방-광역 상수도 연계,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,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.

- 특히,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('18년)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 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물부족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-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“올해 추진하는 가뭄대책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.”고 밝히며, “국민들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